

출산 의도 및 부·모 양육참여와 영아 발달 간 관계*

이 주 리¹⁾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출산 의도가 부모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 참여가 영아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버지 모형과 어머니 모형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은 1685명의 영아(남아 860명, 여아 825명)들이었고, 영아의 월령은 평균 대략 5.6개월 ($SD=1.2$)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출산 의도는 각각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참여만 영아의 발달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발달에 관여되지 않았다.

주요어 : 출산 의도, 부·모 양육참여, 영아 발달

* 본 연구는 2010년 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julie@cau.ac.kr)

I. 서론

우리나라 임신부의 출산 계획의 정도가 50%로 나타났다(문명진 등, 2003). 그러나 이는 유산을 선택하는 집단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 임신의 정도는 50%보다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 의도는 임신 기간 동안 임신부의 행동과 연관 되고, 임신 부 행동은 영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Kost, Landry & Darroch, 1998) 선행연구에 의하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은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계획하지 않은 임신은 산전관리의 지연과 임신 중 흡연, 저체중, 영아 사망, 아동학대, 발달지연과 관련이 있다(Brown & Eisenberg, 1995). 특히, 원하지 않은 임신은 산전과 산후 어머니의 행동과 연관되고 이는 영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oyce, Kaestner, Korenman, 2000).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험적으로도 유의하게 입증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권희경, 2009; 연미희, 1998; Belsky, Gilstrap, & Rovine, 1984; Burchinal, Vernon-Feagans, Cox, & Key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s, 2008; Cabrera, Shannon, & Tamis-LeMonda, 2007; Easterbrooks & Goldberg, 1984; Pomerleau, Scuccimarri, & Malcuit, 2003; Coleman, Trent, Bryan, King, Rogers, & Nazir, 2002; 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 Lewis & Lamb, 2003). 모든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받으며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아동들이 발달 수준 또한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경우, 부와 모를 하나의 변인으로 혹은 모의 양육행동만을 측정하여 아동의 발달과의 연관성을 검증한 경향을 보인다(강인향, 이혜숙, 2008; 강정원, 안지영, 2008; 고은, 오숙현, 2006; 김선희, 2008; 도미향, 윤지영, 2004;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 이인성, 이상희, 2009;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Burchinal, Vernon-Feagans, Cox, & Key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s, 2008; Pomerleau, Scuccimarri, & Malcuit, 2003; Whitt & Casey, 1982). 이는 아마도 초기 산업사회 시대에서부터 형성된 부모의 분리된 주요 역할을 반영한 욕구인 듯하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는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의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반면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과 양육 및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은 1차적으로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되었다.

산업 사회를 지나 정보화 시대가 된 지금도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듯 보인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남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정서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함께 기대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그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은 어머니의 양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ohner, 1998). 심지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발달에 상당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Lewis 와 Lamb (2003)은 문헌 연구 결과, 유아기에 맺게 되는 아버지와 의 친밀한 관계(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맺게 되는)가 이후의 성인기 적응까지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출산계획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연관되기 때문에 임신 계획과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Brown & Eisenberg, 1995).

아버지의 임신 계획의 영향력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임신이 일어난 배경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친다(Bronte-Tinkew, Ryan, Carrano, & Moore, 2007). 둘째, 최근 연구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긍정적 영향은(Lamb, 1987; Parke, 2002), 어머니의 임신의도의 영향력을 넘어서 아버지의 임신의도가 영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Korenman, Kaestner, & Joyce, 2002).

따라서, 이제는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자녀의 발달에 대해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가 어머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동의 발달을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설명한 연구는 권희경(2009), 김광웅과 이인수(1998), 장영애와 이영자 (2008)의 연구 정도이다.

해외에서는 비교적 이전부터 자녀의 연령과 발달 영역에 대하여 보다 다양하게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Belsky, Gilstrap, & Rovine, 1984; Borke, Lamm, Eickhorst, & Keller, 2007; Cabrera, Shannon, & Tamis-

LeMonda, 2007; Easterbrooks, & Goldberg, 1984; Lewis & Lamb, 2003; 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 Rohner, 1998). 예를 들어, 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은 어머니의 지지적인 양육 뿐 아니라, 아버지의 지지적인 양육 또한 마찬가지로 영아의 언어와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Easterbrooks, & Goldberg (1984) 은 걸음마기 영아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활동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들이 영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아주며 돌봐줄수록 영아들의 문제해결능력은 발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Shannon, Tamis-LeMonda, London, & Cabrera, (2002)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참여가 Bayley의 Mental Developmental Index에 나타난 발달지체 가능성을 4배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Rohner (1998)는 어머니가 수용적이더라도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면 자녀의 인지발달 수준은 저하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이 자녀의 발달에 아버지의 양육이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아버지의 영향을 간과하고 어머니에게만 초점을 둔 대부분의 국내 선행 연구들은 그 한계가 있다. 권희경(2009), 김광웅과 이인수(1998), 장영애와 이영자 (2008)의 연구 정도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이 연구들은 모두 사회, 정서발달에 국한되어 있으며 연령 또한 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제

한점을 보완하여, 어머니의 양육참여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함께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두 변인이 각각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부모의 양육참여는 그들의 임신의도에 영향을 받는 듯하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자녀들보다 출산 의도의 결과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더 긍정적인 양육활동을 제공하였다(심정하, 1997; Barber, & East, 2009; Bronte-Tinkew, Ryan, Carrano, & Moore, 2007; Bronte-Tinkew, Scott, Horowitz, & Lilja, 2009; Cabrera, Shannon, Mitchell, & West, 2009; Rogers & Speizer, 2007). 심정하(1997)는 영아모의 임신의도와 양육태도 간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혔는데, 임신에 대하여 남편과 사전 동의가 있었고 임신 이후 임신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던 어머니들일수록 영아에 대한 양육태도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출산 의도와 양육참여 간 관계는 국외 연구들을 통해 그 인과적 관계가 더욱 분명해진다. Barber, & East(2009)는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아동들은 출산 의도를 가지고 태어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출산 의도는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이끌어낸다. 아이를 원했을 경우 아버지의 양육행동들이 활발해졌다(Bronte-Tinkew, Ryan, Carrano, & Moore,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산 의도가 부모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녀의 연령

은 영아로 설정하였다. 인간의 뇌는 태내에서 25%의 신경세포 회로망을 가지고 태어나 출생 후 영유아기 동안의 환경적인 경험으로 나머지 75%를 구성해 간다. 특히, 생후 3년 이하 영아기에 뇌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며, 따라서 이 시기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미, 1998; 박병희, 2000). 영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은 부모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산 의도와 부모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발달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영아 발달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풍부한 결과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출산 의도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영아의 발달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어머니의 출산 의도는 어머니의 양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 참여는 영아의 발달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는 2008년도에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2078 신생아 가구를 추출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육참여를 변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중 양부모 가정만을 추출하였으며,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양부모를 모두 기혼이며 초혼인 경우로 제한하여 최종 1685명의 영아(남아 860명, 여아 825명)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의 월령은 평균 대략 5.6개월(최저 3개월-최고 10개월, $SD=1.2$)이었다.

연구대상의 아버지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2명(0.1%), 중졸 21명(1.05%), 고졸 546명(27.2%), 전문대 졸 420명(20.9%), 대졸 804명(40.0%), 석사 185명(9.2%), 박사 15명 (0.7%) 였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3명(0.1%), 중졸 11명(0.5%), 고졸 629명(30.3%), 전문대졸 590명(28.4%), 대졸 714명(34.4%), 석사 107명(5.2%), 박사 8명(0.4%) 였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 594명(3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전문가 464명(23.4%), 관리자 204명(10.3%), 기능원 189명(9.6%), 장치 및 기계조작 157명(7.9%)였다. 어머니는 약 70%가 미취업 상태였으며, 취업자들 중에는 전문가가 287명(취업자 중 43.8%, 전체 샘플 중 1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사무직 208명(취업자 중 31.7%, 전체 샘플 중 10.0%), 판매직 54명(취업자 중 8.2%, 전체 샘플 중 2.6%) 등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 33가구(1.6%), 101-200만원 497가구(23.9%), 201-300만원 633 가구(30.5%), 301-400만원 371 가구(17.9%), 401만원 이상 544 가구(26.2%)였다.

2. 측정 도구

출산 의도

출산 의도는 영아에 대해 부모가 임신을 ‘계획하지 않았음(원하지 않았음)’ = 0, ‘계획했음(원했음)’ =1 로서 가변수 처리하였다. 아버지 모형에서는 아버지의 임신의도가 포함되었으며, 어머니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임신의도가 포함되었다.

부모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지각한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로서 측정되었다.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서 총 4 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수준은 높은 것이다. Cronbach's $\alpha = .767$ 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한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서 다음과 같다: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내 아기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예: 먹이기,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등)을 잘 만족시켜준다.’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

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참여수준은 높은 것이다. Cronbach's $\alpha = .784$ 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문항은 각각 전반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와 모의 양육내용을 각각 반영한 것이며, 특히 아버지의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와 어머니의 ‘나는 내 아기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도구적 역할과 어머니의 정서적 역할로 서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3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서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아버지 양육참여).’와 ‘나는 내 나이에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어머니 양육참여).’는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

머니 양육참여는 개념적 구조가 같아 측정틀이 일치하며 측정단위도 일치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다고 간주하였다(이순목, 금은희, 이찬순, 2010).

영아 발달. 영아 발달의 측정에는 K-ASQ (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이 사용되었다. 이는 4개월-60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 가능하며 5가지 발달 영역(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각 6개씩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계형, Squires, 이소영, & 이준식(2006)이 원문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적절하게 표준화 시켰다. 응답자는 영아의 어머니였으며, 각 문항들에 대하여 ‘예(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10점)’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5점)’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0점)’으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30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 .852$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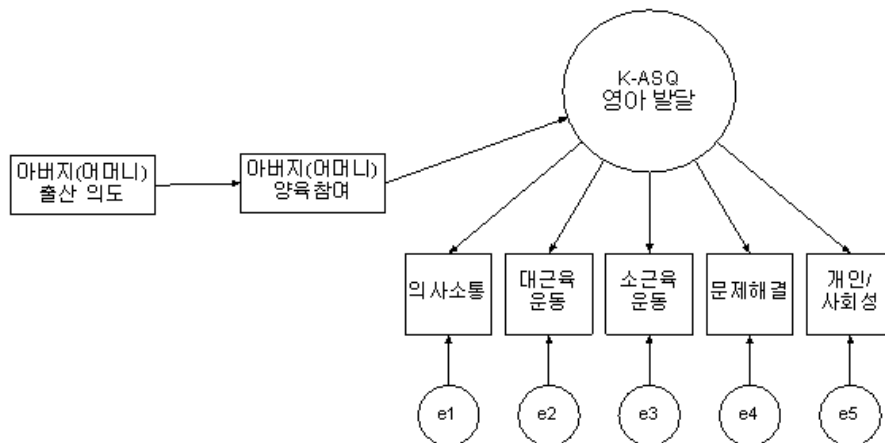


그림 1. 분석 모형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한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아버지(어머니)의 출산 의도가 아버지(어머니)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어머니) 양육참여가 K-ASQ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SEM) 모형을 적용하였다. SEM 분석은 AMOS 7.0 으로 이루어졌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 통계

표 1을 통해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었다. 표 1을 통해 보듯, 전반적으로 영아 발달 수준이 매우 양호하여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이

후의 분석에서는 K-ASQ 변인들을 모두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McElhane, Immele, Smith, & Allen, 2006).

2. 출산 의도,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참여, K-ASQ 영아 발달 간 관계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 등은 모두 K-ASQ 영아 발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은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출산 의도와 K-ASQ 영아 발달 간 상관도 모두 유의하지 않아 출산 의도에서 K-ASQ 영아 발달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설정되지 않았다.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어머니 및 아버지

표 1.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아버지 출산의도	0.79		0	1
어머니 출산의도	0.74		0	1
아버지 양육참여	14.35	3.22	4	20
어머니 양육참여	16.53	2.21	4	20
K-ASQ: 의사소통	54.57	7.95	10	60
K-ASQ: 대근육 운동	58.20	5.09	10	60
K-ASQ: 소근육 운동	55.02	8.63	5	60
K-ASQ: 문제 해결	56.57	6.71	0	60
K-ASQ: 개인/사회성	55.29	7.50	5	60

주. K-ASQ 영아발달 각 영역들이 지나치게 편향(skewed) 되어 있어, 정규성 가정을 위해 이후의 분석에서는 로그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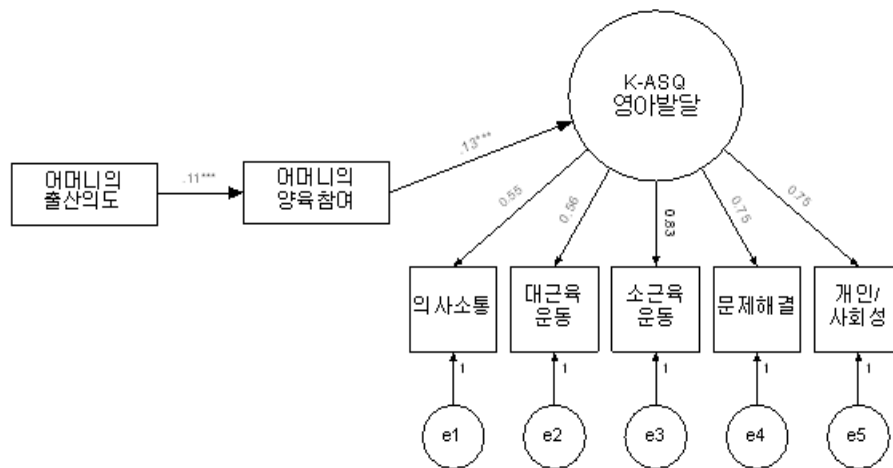
*** $p < .001$ Chi-square=78.391, $df=14$, $p=.000$, NFI=.972, TLI=.953, CFI=.977, RMSEA=.052

그림 2. 어머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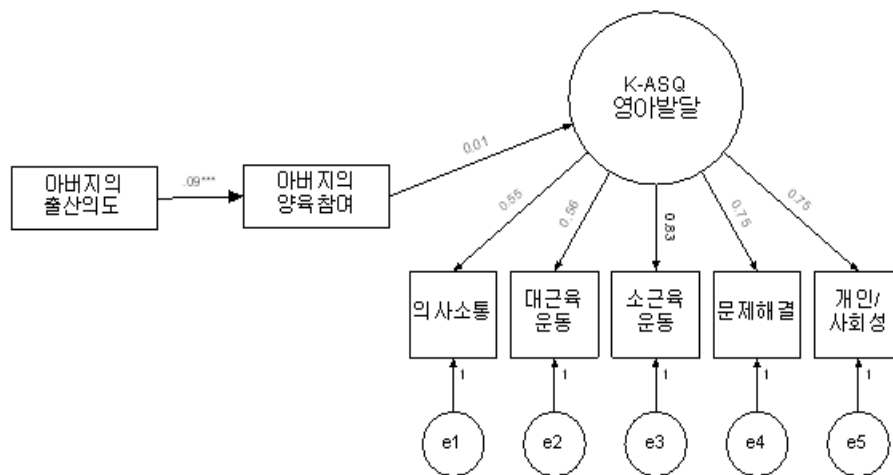
*** $p < .001$ Chi-square=82.296, $df=14$, $p=.000$, NFI=.970, TLI=.950, CFI=.975, RMSEA=.054

그림 3. 아버지 모형

양육참여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자료 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시된 추정치는 모두 표준화계수이다. 아버지

모형은 NFI=.970, TLI=.950, CFI=.975, RMSEA=.054로서, 우수한 수준에서 수용되었다. 아버지 모형에서 출산 의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유의하게 높였으나($\beta=.09, p<.001$),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영아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어머니 모형에서는 출산 의도가 어머니의 양육참여 수준을 유의하게 높였을 뿐 아니라($\beta=.11, p<.001$),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참여 수준이 영아 발달 수준에까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13, p<.001$). 어머니 모형은 $NFI=.972$, $TLI=.953$, $CFI=.977$, $RMSEA=.052$ 로서 자료를 우수한 수준에서 적합시켰다.

출산 의도는 어머니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모두 유의하게 고무시켰으나, 영아 발달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닌 어머니의 양육참여만이 관련되었다. 계획에 의해 태어난 영아는 어머니의 양육참여 수준은 높이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출산 의도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발달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아버지의 출산 의도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영아의 발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아이를 위해서 임신을 계획하였던 아버지들일수록 놀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우유를 먹이는 등의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활동들을 많이 하였으나,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행동들이 영아의 발달 수준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임신의도가 있었을 경우 아버지의 양육행동들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연구결과(Bronte-Tinkew, Ryan, Carrano, & Moore, 2007)와는 일치하지만, 아버지의 지지적인 양육행동들이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Easterbrooks, & Goldberg, 1984; 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참여 수준은 어머니의 출산 의도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참여의 질은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들은 임신 의도를 가지고 출산한 아기들에 대하여 더욱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함께 놀아주고 먹이고 목욕시키는 등의 돌보는 활동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활동들은 영아의 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는 영아 모의 임신 의도와 양육태도가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심정하(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어머니의 양육이 자녀의 발달에 유의하게 관여한다는 김선희(2008), Burchinal, Vernon-Feagans, Cox, & Key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s(2008), Pomerleau, Scuccimarrì, & Malcuit(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은 영아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아버지의 양육은 영아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2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관련된 측면이다. Easterbrooks & Goldberg (1984)는 아버지의 양육관여는 영아의 발달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

버지가 영아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돌봄 행위들은 아버지와 영아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영아의 발달과 더 관련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주요 역할은 양육자(caregiver)이기 보다는 놀이상대(playmate)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Clarke-Stewart, 1980).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아버지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자녀와 일상을 공유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아버지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모습은 어머니보다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기혼 남성들은 ‘놀아주기’ 나 ‘동화책 읽어주기’ 등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와 동등한 책임을 느끼지만, ‘기저귀 갈아주기’ ‘밥 먹이기’ ‘재우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육아에 있어서는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조선일보, 2008).

둘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관련된 측면이다.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깊은 애착을 형성한다(Lewis & Lamb, 2003). 이것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Lewis & Lamb(2003)은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들과 덜 민감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신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애정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지만, 아버지의 영

육참여는 영아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각각 영아의 발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출산 의도는 모두 그들의 양육참여를 유의하게 고무시켰다. 이는 무계획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원활한 양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참여의 질은 영아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건강한 자녀 양육은 임신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아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영아의 어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임순화, 박선희, 2010)가 이를 지지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발달 간 관계에 대하여 아버지 관련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보다 역동적인 과정을 살펴볼 것이 권장된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제한점은, 양육참여를 포괄적으로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과정에는 수유, 재우기, 목욕시키기 등의 일상적인 돌봄 행위들 뿐 아니라 놀아주거나 학습활동에 대한 관여 등도 포함된다. 놀이 활동도 신체적인 놀이나 언어활동(예를 들어 동화책 읽어주기)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참여에 대하여 이처럼 다양한 활동 영역으로 세분화하

여 측정해 볼 수 있겠다. 아버지는 양육자 (caregiver)의 역할보다 놀이 상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Clarke-Stewart (1980)의 연구결과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제기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지각한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로서 측정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하여 아버지 스스로가 응답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더욱 공고히 지지하기 위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인을 본 연구와 동일한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일생 중 뇌가 가장 유연하게 발달한다는 영아기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출산 의도와 양육참여, 그리고 영아 발달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출산 의도는 부모 모두에게 양육참여의 정도는 증가시켰지만, 부모의 양육참여의 정도는 어머니의 경우에만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이 영아 발달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 강인향, 이혜숙 (2008). 어머니의 DISC행동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유아의 인성지능발달의 차이. *아동교육*, 17(1), 55-67.
- 강정원, 안지영 (2008). 유아의 쓰기발달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가정에서의 쓰기지도 현황. *유아교육학논집*, 12(4), 5-24.
- 고은, 오숙현 (2006).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유무에 따른 영아기 언어발달 비교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8(1), 19-40.
- 권희경 (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79-98.
- 김광웅, 이인수 (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선희 (2008). 보육경험,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연구*, 28(6), 185-206.
- 김유미 (1998). *온몸으로 하는 학습*, 서울: 진우.
- 도미향, 윤지영 (2004). 외동아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5(3), 75-85.
- 문명진, 정진훈, 최준식, 안현경, 류현미, 임하정, 신중식, 김주오, 양재혁, 김문영, 최규홍 (2003). 계획임신율과 계획임신에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6(9), 1741-1745.
- 박병희 (2000). 두뇌 연구 결과와 영아기 교육, *계명연구논총* 18(1), 115-134.
-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M. (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 심정하 (1997). 영아모의 임신의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7(2), 454-464.
- 연미희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 지, 36(7), 111-122.
- 이순목, 금은희, 이찬순 (2010). 다집단 분석의 문제: 평균구조분석에서의 측정원점 동일성 검증 필요 여부. *교육평가연구*, 23(2), 391-416.
- 21세기 아빠들이 사는 법 - 프렌디 <friend + daddy · 친구 같은 아빠> 아빠가 요리해 주면 아이가 밝게 자란대요. (2008. 12. 17.) *조선일보*, 22면
- 이인성, 이상희 (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아동교육*, 18(3), 177-189.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 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임순화, 박선희 (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51-178.
- 장영애, 이영자 (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 이준식 (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 Questionnaire)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Barber, J. S., & East, P. L. (2009). Home and parenting resources available to siblings depending on their birth intention status. *Child Development*, 80(3), 921-939.
-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55, 692-705.
- Borke, J., Lamm, B., Eickhorst, A. & Keller, H. (2007). Father-infant interaction, paternal ideas about early child care, and their consequences for the developmental of children's self-recogni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8(4), 365-379.
- Bronte-Tinkew, J., Ryan, S., Carrano, J., & Moore, K. (2007). Resident fathers' pregnancy intentions, prenatal behaviors, and links to involvement with infa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977-990.
- Bronte-Tinkew, J., Scott, M. E., Horowitz, A., & Lilja, E. (2009). Pregnancy intentions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links to coparenting for first-time fathers of infant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9, 1-35.
- Brown, S., & Eisenberg, L. (Eds.) (1995). *The best intentions: Unintended pregnancy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famili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Burchinal, M., Vernon-Feagans, L., Cox, M. & Key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s (2008). Cumulative social risk,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in rural low-income communiti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8, 41-69.
- Cabrera, N. J., Shannon, J. D., Mitchell, S. J., & West, J. (2009). Mexican American mothers and fathers' prenatal attitudes and father prenatal involvement: Links to mother-infant

- interaction and father Engagement. *Sex Roles*, 60, 510-526.
- Cabrera, N. J., Shannon, J. D., & Tamis-LeMonda, C. (2007). Fa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toddlers to Pre-K,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1(4), 208-213.
- Clarke-Stewart, K. A. (1980). The father's contribution to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In F. A. Pedersen (Ed.), *The father-infant relationship: Observational studies in the family setting*. New York: Praeger.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 (1984). Toddler development in the family: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55, 740-752.
- Joyce, T. J., Kaestner, L., Korenman, S., (2000). The effect of pregnancy intention on child development. *Demography*, 37(1), 83-94.
- Korenman, S., Kaestner, R., & Joyce, T. (2002). Consequences for infants of parental disagreement in pregnancy intentio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 198-205.
- Kost, K., Landry, D. J., & Darroch, J. E. (1998). Predicting Maternal Behaviors During Pregnancy: Does Intention Status Matter?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0(2), 79-88.
- Lamb, M. E. (1987). Introduction: The emergent American father. In M. E. Lamb (Ed.),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s*. Hillsdale, NJ: Erlbaum, 3-25.
- Lewis, C. & Lamb, M. E. (2003). Father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The evidence from two-parent famil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8, 211-228.
- McElhaney, K. B., Immele, A., Smith, F. D., & Allen, J. P. (2006) Attachment organization as a moderator of the link between friendship quality and adolescent delinquenc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8(1), 33-46.
- Parke, R. D. (2002). Parenting in the newmillennium: Prospects, promises, and pitfalls. In J. P. McHale & W. S. Grolnick (Eds.), *Retrospect and prospect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families*, Mahwah, NJ: Erlbaum, 65-93.
- Pomerleau, A., Scuccimarri, C. & Malcuit, G. (2003). Mother-infant behavioral interactions in teenage and adult mother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postpartum: Relations with infant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5), 495-509.
- Rogers, J. & Speizer, I. (2007). Pregnancy Intention and Father Involvement in Guatemal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8(1), 71-85.
- Rohner, R. P. (1998). Father love and child development: History and current evidence.

-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7(5), 157-161.
- Shannon, J. D., Tamis-LeMonda, C. S., London, K., & Cabrera, N. (2002). Beyond rough and tumble: Low-income fathers' interactions and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t 24 month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 77-104.
- Tamis-LeMonda, C. S., Shannon, J. D., Cabrera, N. J., & Lamb, M. E.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and 3-year-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1820.
- Whitt, J. K., & Casey, P. H., (1982).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and infant development: The effect of pediatric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53, 948-956.
- 1차 원고접수 : 2010. 12. 27
수정원고접수 : 2011. 2. 15
최종게재결정 : 2011. 2. 28

Birth Planning,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Lee, Julie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father's and mother's birth intention would affect on their caregiving involvement, and whether their caregiving involvements could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ir infant's development.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such influences by a father model and a mother model, respectivel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used data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of KICCE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A total of 1685 children were selected (860 boys, 825 girls), and their average months was 5.6 month($SD=1.2$). As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both the father's and the mother's birth planning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ir caregiving involvement level respectively. But the mother's caregiving involvement onl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fant's development and the father's caregiving involvement didn't affect on the infant's development.

Key words : Birth planning, Father's & Mother's Caregiving Involvement, Infant's Development